

2017. 1. 3.(화) 언론보도 스크랩

OBSNEWS

2017년 01월 02일 (월)
종합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방문객 1만여 명 돌파

이재상
4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의 방문객이 1만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민간에 개방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1년여 만에 총 10,625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해 민통선 내 통일대교 등을 지나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km 구간으로 도보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재상 leejs@obs.co.kr

14.4 X 6.0 cm

서울경제

2017년 01월 03일 (화)
31A면 전국

임진강 생태탐방로 1년간 1만625명 방문

경기도는 '임진강 생태탐방로'가 지난해 1월 민간에 개방된 후 1년간 총 1만625명이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탐방로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해 민간인통제구역 내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km 구간으로 도보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다.

군사분계선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본래 군사 보안 등의 이유로 지난 1971년부터 약 45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이다. 경기도는 2015년 3월 제1보병사단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7.0 X 8.0 cm

국민일보

2017년 01월 03일 (화)
16면 사회

45년 만에 개방 '임진강 탐방로' 방문객, 1년 만에 1만명 돌파

경기도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지난해 1월 민간에 개방된 지 약 1년 만에 방문객수 1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해 민간인 통제구역 내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거쳐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km의 트레킹 코스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약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군사 보안 등의 이유로 1971년부터 약 45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민간개방을 위한 군경협력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3월 관할부대인 1사단과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 개방됐다.

특히 임진강 생태탐방로는 임진강변 때문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탐방객들은 철책선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의 풍경, 독수리·재두루미 등 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초평도,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북한의 가정동마을은 물론 개성 송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장산 전망대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인근에는 조선 대학학자 울곡이기가 임진강을 바라보며 시를



지난해 1월 45년 만에 민간에 개방된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찾은 시민들이 임진나루 인근 천혜의 트레킹코스를 만끽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었다는 '화석정',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울곡습지공원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나들이에도 안성맞춤이다.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일 7일 전까지 생태탐방로 공식 홈페이지(pajuecoroad.com)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월·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하루 참가 인원은 최대 150명이며 민통선 내를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사진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20.8 X 10.9 cm